

북스

어린이 책꽂이



▲알쏭달쏭 UFO =논란이 되고 있는 UFO와 외계 생명체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해준다. 역사상 유명한 UFO 사건을 따라가면서 UFO와 외계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주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웅진주니어·9000원〉



▲도깨비 쌀과 쌀 도깨비=시와 동화를 쓰는 김홍희씨의 창작 동화. 옛날 먼 옛날 사람과 도깨비가 함께 살던 시절 수많은 도깨비들이 힘을 모아 주분을 외워 만든 도깨비 쌀이 있었는데 귀한 쌀을 도깨비 우달이 납몰래 사람들에게 선물했버렸다. 도깨비 우달과 아버지가 나누는 우정과 지혜를 재미있게 그렸다. 〈개암나무·9000원〉



▲멋진 녀석들=괴롭힘과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다. 잇페이는 소년 축구팀에 새로 들어온 가즈야가 마음에 들지 않자며 집단 따돌림 시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잇페이가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한다. 입장이 바뀐 잇페이는 그동안 자신이 아이들에게 저질렀던 잘못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다. 〈국인서관·9000원〉



▲삼국 역사 속 숨은 영웅들=어느 시기보다 치열했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삼국시대의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다. 화랑 사다함, 문장가 강수, 음악가 왕산아, 장군 강이식, 장인 유종광 등 삼국 시대에 있었던 다양한 직업과 인물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해진다. 〈뜨인돌어린이·9500원〉



▲오줌지도=밤에 오줌을 싸고 아토피도 앓고 있는 밤도가 할머니를 따라 시골로 내려가서 겪게 되는 이야기다. 시골에서 동갑내기 친구 만복이를 만난 밤도는 보물이 묻혀있다는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며 건강을 찾아간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흐리원·8500원〉



▲밤상머리에서 배워요=종갓집 종손 민유네 가족의 밤상머리 교육을 재미있게 엮은 창작동화다. 밤상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밤상머리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민유네 가족'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기영 교수의 밤상머리 콕콕삼' 코너를 통해 유용한 정보도 배울 수 있다. 〈밤상머리교육·9800원〉



▲로알드 달의 발칙하고 유쾌한 학교=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작가 로알드 달(1916~1990년)의 어린 시절 이야기. 의사의 실수로 한쪽 팔을 잃고도 불운을 비관하지 않는 아بة, 해마다 10명이나 되는 대식구를 거느리고 여행을 떠나는 엄마 등 따뜻한 가족 이야기가 담겨있다. 〈살림Friends·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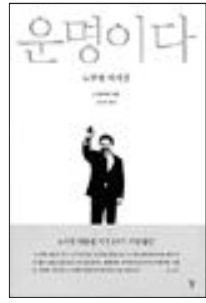
▲어린이는 어린이다=1989년 제정된 '유엔 어린이 권리협약'을 자세히 뜯어보면서 어린이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담았다. 세계 어린이 인권의 현실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어린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고민하기도 한다. 〈해와나무·1만1000원〉

〈해와나무·1만1000원〉

출생에서 죽음까지 '인간 노무현'

운명이다

노무현재단 엮음



노무현 (1946~2009년)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우리 곁을 떠나지 곧 1년이 된다. 노무현재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23일)에 맞춰 노무현 사후 자서전격인 '운명이다'를 펴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인간 노무현'의 기록이다.

고인의 모든 자필, 구술 기록물들을 살펴 일대기로 정리했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유족과 지인들의 인터뷰, 공식 기록 등을 통해 보완했다.

정리는 참여정부 당시 측근이었던 유시민 전 장관이 맡았다. 또 고인이 남긴 여러 기록들 중 퇴임 후 서거 직전의 미완성 회고록 노트를 기본

으로 문체를 통일하는 작업도 거쳤다. 자서전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 총 4부로 구성됐다.

프롤로그에는 자서전의 집필 시점(고인이 회고록 초안을 위해 메모를 시작하는 시점)인 서거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에필로그에서는 정리자인 유시민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의 상황을 정리했고, 문재인 재단 상임이사가 감사의 말을 썼다.

1부 '출세'는 출생에서부터 부산상고에 입학해 공부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2부 '꿈'은 부림사건을 맡은 이후 민주화운동에 헌신하게 된 이야기부터 정치에 입문해 민주당에서 대통령후보로 경선에 나서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실렸다.

3부 '권력의 정상에서'에서는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부터 대통령 재임기간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4부 '좌절'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으로 내려가 새로운 꿈을 꾸고 실패한 후 서거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편, 이번 자서전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 불거진 불법 '대북송금' 특검 사건과 관련한 비화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고인은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 "대북송금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서 안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견해에 나는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쓰고 있다.

그는 또 '통치행위론'을 내세워 검찰 수사를 막고 싶었으나 좌절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김 대통령이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 이런 뜻을 말씀드렸다. 하지만 김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사전에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고 하겠다. 대통령이 한 일이 아니라고 했으니 통치행위론을 내세우는 데 필요한 근거가 사라져버렸다"고 적고 있다.

이외에도 대선과정에서의 비화, 이라크 파병,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뒷얘기와 이를 대하는 고인의 심경도 상세하게 담겨있다.

책 중간 중간 고인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수록해 그리움을 더한다.

〈돌베개·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부권부재 속 가족이 겪는 고통

빈집

김주영 지음



'객주' '흥어'의 작가 김주영이 새 장편 소설 '빈집'을 내었다. '벌치' 이후 8년 만에 나온 신작이다.

이번 소설은 '흥어' '벌치' 등 전작과 마찬가지로 가족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특유의 남상적 필치로 그려가는 가족상은 전작들과는 판이하다.

'빈집'은 부권 부재의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온전히 사랑받지 못했던 여자의 이야기. 노름판을 전전하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딸을 구박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항상 혼자나 마찬가지로 지냈던 딸 '어진'의 이야기다.

어진은 결혼을 통해 지긋지긋한 집을 벗어나지만, 시집을 가서도 홀로인 신세를 면치 못한다. 다시 길을 떠나 이복인인 '배수진'을 만나지만 그녀마저도 어진의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 어진은 또다시 텅그러나 길 위에 남겨진다.

작가는 이번 소설에서도 전작들에서 보여준 견묘의 미학을 더욱 발전시켜가며 한 가족의 적막한 이야기를 전한다.

작가는 "아버지가 집을 버림으로써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을 이야기했다"며 "가족이란 무엇이고, 집이란 무엇인가를 추구했다"고 말했다.

책 제목으로 삼은 '빈집'은 오늘날의 가족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을 잘 대변하고 있다. 〈문학동네·1만1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늘지않는 불교계 큰스님의 삶

가야산 정진불... 1, 2

정찬주 지음



성철 스님과 일타 스님의 생애를 소설로 조망했던 정찬주씨가 오로지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서릿발같이 독려하던 해암(조계종 10대 종장·2001년 열반) 큰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엮은 '가야산 정진불-해암 큰스님 이야기 1, 2'를 출간했다.

해암은 출가한 27세부터 방바닥에 눕지 않고 자는 장좌불와(長坐不臥)와 하루 한 끼만 먹는, 이른바 일종식(一種食)을 철저히 지켰던 해암 스님은 성철스님 열반 이후 불교계의 정신적 지주로서 1994년과 1998년 조계종 분규 때 중단을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소설에는 아직도 많은 불자들에게 생생하게 기억되는 해암 큰스님의 생애와 웅결한 가르침이 새겨져 있다.

스님으로부터 직접 "내 얘기를 소설로 한번 써봐"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정씨는 "지리산 상무주암과 도솔암, 문수암을 비롯해 태백산의 동암과 남해 용문사와 염불암, 설악산 오세암 등 스님이 수행하면서 중창한 도량들을 찾아다녔으며 주변의 많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을 취재해 얻은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장장 10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완성한 소설이다"고 밝혔다.

한편, 책에는 사진작가 유동영씨가 찍은 생생한 사진을 곁들여 해암 큰스님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랜덤하우스·각권 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트위터계 대통령' 네티즌과 소통

아블류 시블류

이외수 지음



'트위터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작가 이외수씨가 자신의 트위터 사이트에 올린 글을 묶은 에세이집 '아블류 시블류'(我不流 時不流)를 냈다.

작가가 2년간 트위터 사이트에 실은 2000여편의 글 가운데 많은 네티즌의 리트윗(돌려보기)이 있었던 323 쪽지의 원고를 선별했다. 또 화가 정태원씨가 '시간과 나, 그리고 영원'을 주제로 그린 59컷의 세밀화가 더해졌다.

45년간의 흡연을 그만두자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웠던 작가는 매일 트위터에 5~10회 글을 다듬어 써올리며 금단현상을 이겨냈다고 한다.

제목 '아블류 시블류' "내가 흐르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트위터를 통해 몇줄의 문장으로 네티즌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 작가는 "문학은 단순한 소통이나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며 "단순한 소통이나 전달은 모스 부호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모스 부호로는 수백만의 인명을 구할 수는 있어도 수백만의 영혼을 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책은 "웃음이에 축늘어진 채 걸려 있는 웃을 보면서 문득 '나는 어디로 갔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문장을 맨 처음에 전한다. 〈해냄·1만2800원〉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지매매
상무지구 1,652㎡ (600) 상업 1,100만원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만원

현대공인중개사
토지매매
광산구 수완동 자연녹지 매매
6,571㎡(1,990평) 매매가 14억 물류창고, 교회, 요양원, 식당, 공장 적합, 유아원, 대형차 진입 가능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